

## 圖書館을 통한 讀書習慣 振興運動

白承吉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연구위원〉

책은 제일 오래된 매스컴의 매체이며 우리 문명사에서 가장 특권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그러나 책은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는 이제 유니크하지 않다. 책의 형태와 기능 그리고 축적된 지식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전파하는 수단으로서의 역할이 현대과학과 기술의 도전을 받고 있다. 책은 문서화·정보의 저장수단을 새로운 기술에 빼앗기고 있다. 예를 들면 컴퓨터가 이런 기능을 더 잘, 그리고 싸게 수행할 수가 있다. 그렇게 때문에 책은 본래의 기능으로 돌아가 독서라는 유니크한 관계를 통해서 독자가 선택한 저자와의 만남을 가능케 한다.

독서능력은 오래전부터 개인의 충족을 위해서는 필수불가결의 요소이며 또 한 나라의 사회·경제적 발전이 그 국민이 접할 수 있는 활자화된 정보의 양에 달려있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문맹이라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국민들에게 독서습관을 심어주고 적절한 도서를 공급해주는 일이 모든 국가의 임무이다.

사정이 나아지고는 있지만 우리는 선진국과 비교해보면 아직도 도서관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특히 북구의 작은 나라들과 비교해보면 더욱 그렇다. 유네스코 통계연감(1991년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89년에 공공도서관이 231개인데 화란이 473개, 스웨덴이 382개, 핀랜드가 460개, 노르웨이 446개를 갖고 있다. 스웨덴을 제외한 나라들은 인구가 일천만 이하이다. 이처럼 우리는 hardware인 도서관이 부족하며 또 software인 독서습관 진흥운동은 결음마 단계에 있다.

독서습관 진흥운동은 유치원생으로부터 국민학교 저학년까지, 그리고 성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다양한데 여기에서는 특히 외국에서는 도서관이라는 제도 안에서 어떻게 진흥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 살펴본다. 독서습관 진흥운동의 목적은 첫째로 책을 읽지 않는 사람에게 책을 읽게 동기를 만들어주고 읽는 사람에게는 계속해서 읽게 만드는 것이다. 이 분야 전문가들의 연구보고서를 읽어보면 독서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고 한다. 부모가 아이들에게 책을 큰 소리로 읽어주는 것이 진흥의 첫거름이라고 한다.

외국에서는 학교도서관 이외에 교실마다 도서실을 운영하는 나라들이 있다. 특히 국민학교에서의 도서관은 수업의 보충자료와 읽을 거리를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나라에서는 국민학교의 도서관에서 사회의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방법을 배우게 한다. 사실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익숙해지면 그것이 바로 독서교육의 시작인 셈이다. 어린이 도서관을 운영하거나 공공도서관에 어린이 부서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도서관이 많다.

독일에서는 학교도서관 주창자들과 공공도서관 주창자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진 적이 있는데 독일 도시 연합회는 회원들에게 학교도서관보다는 공공도서관의 건립을 권고했다. 사실 오스트리아의 빈시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은 17%밖에 되지 않는데 공공도서관을 학교안에 세우면 80%의 학생들이 그것을 이용하고 있었다.

국민학교 학생들의 박물관학습과 같이, 많은 나라

에서는 국민학교 학생들을 도서관에 데리고 가서 도서관을 실제로 이용하는 방법을 사서나 인솔교사를 통해서 배운다. 학교도서관이나 교실도서관을 운영하지 않는 곳에서는 주기적으로 학생들을 도서관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노출시키는 것 만으로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큰 도서관들은 주기적으로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교사들에게 독서습관 진흥에 필요한 훈련을 받는다.

많은 도서관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이야기 시간”을 마련하고 있다. 듣는 것이 읽는 것보다 쉽기 때문에 그리고 읽는 사람이 그의 목소리와 표정을 통해서 의미를 더 잘 전달하기 때문에 책읽기를 좋아하지 않는 아이들도 즐겨 듣는다. 이 이야기 시간에 아이들의 책에 관한 흥미를 돋구어 주면 아이들은 스스로 자기가 좋아하는 작가의 작품을 고르게 된다. 작가를 초대해서 작가가 직접 아이들에게 읽어주는 경우도 있지만 작가의 시간이 무한정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에 한한다. 미국의회도서관안에 설립된 Center for the Book은 정기적으로 유명한 작가와 저술가들의 초청강연회를 연다. 1977년에 설립된 이 센터는 다른 나라에 비하면 유네스코가 1972년을 책의 해로 선포하고 각 회원국에 권장했던 도서발전위원회(National book Development Council)와 같은 역할을 한다.

책과 독서에 관한 심포지움, 강연회와 책에 관한 전시회를 개최하여 책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독서습관화를 진흥한다.

많은 나라에서는 독서클럽을 만들어 학생들에게 독서에 대한 취미를 일깨워주고 또 한편으로는 바른 책, 좋은 책을 선택하게 도와준다. 미국과 체코슬로바키아에서는 독서클럽이 매년 일정한 수량의 책을 출판하기 때문에 회원들에게 책의 공급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오스트리아에서는 국민학생 90%가 오스트리아 어린이 책클럽에 가입하고 있어서 클럽은 회원들에게 사서 읽을만한 책의 리스트를 제공해주고 학생들은 그 책을 25% 할인해서 구매한다.

독서클럽들은 책의 선택을 돕는 일 이외에 독서유발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유고슬라비아에서는 독서

경연대회를 열어 최우수상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작가의 초상이 들어있는 메달을 상으로 받는다.

책의 전시회에 저자를 초청해서 저자의 저작품의 낭독과 견행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도서전시회는 도서와 독서주간, 또는 어린이 도서주간에 국한해서 조직할 것이 아니라 도서관, 학교, 클럽에서 소규모 일수록 효과적일 때가 많다. 이런 도서전시회는 대개 상급생들이 하급생들을 위해서 조직한다.

규모가 큰 도서관은 박물관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고서화, 고지도, 희귀본등의 전람회를 수시로 조직해서 도서관으로 사람들을 불러들인다. 도서관도 박물관과 마찬가지로 방문객을 앉아서 기다리는 시대는 지나가고 이제는 도서관이 독자를 찾아가는 시대가 되었다. 이동도서관의 개념이 이동박물관의 개념과 동시에 생겨났다.

독서를 장려하는 방법이 나라마다 다양한데 오스트리아에서는 빈으로 가는 모든 통근열차와 30분 이상 2시간 걸리는 거리를 왕래하는 열차에는 도서관 차량이 있어서 승객은 언제나 책을 빌려 읽을 수 있다. 덴마크와 스웨덴에서는 카페테리아에 책과 잡지를 비치해서 읽히는 운동을 시험하고 있다.

북구에서는 “병원에서의 예술”이라는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는데 덴마크와 스웨덴에서는 200명 이상을 가진 병원, 그리고 유고슬라비아와 헝가리에서는 500명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체는 정식 사서를 고용하는 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을 법으로 정하고 있다.

사실 책을 한번도 읽지 않는 환자들이 오랫동안 병원에 살면서 책을 다시 읽기 시작한 사례가 많이 발표되고 있다. 병원에서의 예술의 원래 목적은 치료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런 병원에서는 시각장애자를 위한 음반으로 된 시와 소설을 대여해주고 또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미술품을 환자들에게 대여해 주기도 한다. 이런 나라에서는 공공도서관과 병원의 도서관들이 유기적으로 함께 일을 한다.

책과 시청각 매체는 상반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관계에 있다. 매스 미디어는 상상력을 자극하고, 호기심을 유발하고, 학습욕망을 유발하기

때문에 교육적인 동기나 충동을 제공한다고 말할 수 있다. 보고 들은 것이 책을 통해서 보완될 때에 그렇다는 말이다. 예를들면 동물의 세계나 환경오염에 관한 TV프로를 교육적으로 이용하자면 교사나 독서클럽의 장은 TV프로를 미리 알려주고 그 프로를 보고들은 다음에 그것에 관한 토론을 조직한다면 보고 듣고 흘려버린 것을 가지고는 토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아니면 토론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동물이나 환경오염에 관한 책을 찾아서 읽게 되고 이렇게 새로운 호기심과 학습의욕이 발동되면 책읽기는 자연스럽게 시작된다고 한다.

책광고도 독서습관의 진흥에 기여한다. 미국의 어린이 도서 위원회 (Children's Book Council)는 매년 "올 여름의 더위는 책으로 식히자" 또는 "지금 책을 읽어야 성공한다" 등의 슬로건을 담은 포스터, 책을 읽다 중단한 곳을 표시하는 부크마크등을 만들어 독서프로그램과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이 기간중에 어린이들은 휴가기간 중에 읽은 책의 리스트를 그림으로 그리기도 한다. 많은 나라에서는 한스 크리스찬 안데르센의 탄생기념일인 4월 2일을 세계 어린이 책의 날로 정해서 책읽기 진흥운동을 한다.

라디오나 TV에서 언급되거나 거론된 책이 베스트 셀러가 되듯이 영화의 원본이 된 소설이 베스트

셀러가 되어 많이 읽힌다. 책을 일상적으로 읽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책을 읽게 유도를 받는다. 독서습관을 진작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될 수 있는 한 아이들의 프로그램과 교육 프로그램에 더 많이 책을 끌어들여야 한다. 이것은 성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독서습관 진흥운동은 누구보다도 미래의 독자적인 어린이들을 최대의 표적으로 삼아야 한다. 이런 점에서 학교는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한다. 학교는 책을 읽기를 배우는 장소일 뿐 아니라 책을 발견하고 독서의 즐거움을 발견하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자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도서관과 잘 훈련된 사서가 필요하다. 도서관은 스웨덴이나 미국에 있어서와 같이 지역주민, 젊은이, 노동자, 노인과 책을 읽지 않는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문화의 센터로 만들어야 한다. 도서관은 또한 영국에 있듯이와 같이 미디어 도서관이 되어 레코드와 슬라이드, 영화나 비디오 카세트, 컴퓨터 터미널과 책을 모든 이용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도서관은 우리들의 문명을 특징지우는 모든 미디어를 항상 접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하고 또 이용자들은 그러한 접촉을 통해서 책의 특수한 자질과 품격을 다시 발견하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

한국도서관협회 출판물안내					
☎ 137-702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2동 산60-1					
☎ (535) 4868 · 5616					
성 명	저 자	발행연도	면 수	정가	
한국십진분류법 (본표·상관색인)	분류분과위원회편	1980	1,300	20,000원	
한국 목록 규칙 ( 3.1 판 )	한국도서관협회	1990	101	4,000원 (반양장)	
한국 도서관 통계 ( 1992 년 도 판 )	한국도서관협회	1992	138	8,000원	
도서관학·정보학 용 어 사 전	사공 철 등 편	1986	336	15,000원 (반양장)	
한국학자료선정목록	한국도서관협회	1986	331	18,000원	
도서관백서 (1992)	한국도서관협회	1992	250	6,500원	
* 회원특전 : 우리협회 회원이 상기 출판물을 구매할 경우에는 정가의 20%가 할인됩니다.					